

제10차 국어교육학회 세미나 (24. 12. 6.)

국어교육의 이론 6: 다중언어시대의 언어 교육과 인공지능

## 다중언어공간에서의 한국어와 교육

— 고정관념을 넘어, 새로운 탐색을 꿈꾸며

강남옥(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한국어교육학과)



# 이야기 매듭

- 1 이들에게 한국어란 무엇이었을까?  
(다중언어 공간으로서 한국)
- 2 단일 언어 아비투스과 언어 속지주의
- 3 ‘한국의 언어’는 ‘한국어’인가?  
(한국어의 힘과 한국 속 언어의 힘)
- 4 이주배경학생을 만나며
- 5 갈등/감산의 언어, 자원/가산의 언어





Part 1,  
이들에게 한국어는?

# 1 이들에게 한국어는 무엇이었을까?

- 국외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나서 그들의 삶을 25년 정도 지켜보다.
  - 이주노동자로 지내다가 트럭 사이에 무릎이 부서지고, 2층에서 유리창과 함께 추락한 A와 그의 동료
  - 양주에서 공장 노동자로 지냈던 B, C, D와 컨테이너에서 보낸 연말 모임의 추억 - B의 사망, D의 성공
  - 결혼이주자로 사는 E, 외국인 부부로 들어와 아이를 키우며, 한국에서 박사까지 받고 연구원으로 일하는 F
  - 한국어를 바탕으로 총리실 고위 공무원, 사업으로 재력을 키우고, 한국 공관에 외교관으로 나온 G
  - 대학 졸업부터 정부기관과 대사관에서 30년을 일하며 ‘한국어를 그때 왜 배워서...’라 농담하는 H
  -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가 끊임없는 폭력에 스스로 이혼 소송을 내고, 2002년 법정 통역을 나에게 부탁한 I
- 한국 대학에서 초등 교사를 양성하고 그들이 만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재정착난민 아동, 재외동포3세 아동 프로그램 운영 경험
  - 안산, 안성, 평택, 김포 등에서 일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 대학원 제자가 들려주는, 그리고 종종 찾아가는 ‘지구촌학교’의 하루
  -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 그들은 수업, 학업, 그리고 사회 진로

# 1 다중언어 공간에서의 한국어, 최근의 사례 두 가지

 Jeongmin Kim  
@jeongminnkim

안녕하세요 영상의 기자 저희 회사 CEO @chadocl 입니다 한국어 질문 저랑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도 많이 하구 갓답니다...! 😊

저희는 미국 북한분석 전문 NK News, NK Pro & 한국 시사 전문지 Korea Pro 를 운영하는 Korea Risk Group입니다!

[nknews.org](http://nknews.org)  
[koreapro.org](http://koreapro.org)  
Translate post

 @Jaem\_cheese · 3h

외신기자가 서투르지만 열심히 한국어로 질문하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사회자한테 말귀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하고 미소지음



- 1) 한국어 모국어 청자가  
한국어가 모국어인 화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례
- 2) 한국어가 모국어인 청자가  
한국어가 모국어인 화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례

# 1 두 사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사례 1]을 생각해 보면,

- 소위 'Intelligibility'의 문제였을까?
  - speech signal이 청자에게 전달되는 명확도, 억양(accent)/휴지(pause) 등과 관련
- 한국인의 외국인 화자 발언의 intelligibility는 어디서부터일까?  
(예컨대 강연자 강남욱과 비교하여)
- 교육적으로 볼 때, 화자의 훈련이 필요한가, 청자의 훈련이 필요한가?
- 청자에게는 어떤 '태도'가 발견되는가?
  - 심리적 반응: 백인이 한국어를 잘 할 리가 없지! / 백인의 한국어는 불완전할 거야.  
외국인의 한국어는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리가 없어. ...
- 태도의 교육이 필요한가? 이는 시민윤리교육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 1 두 사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사례 2]를 생각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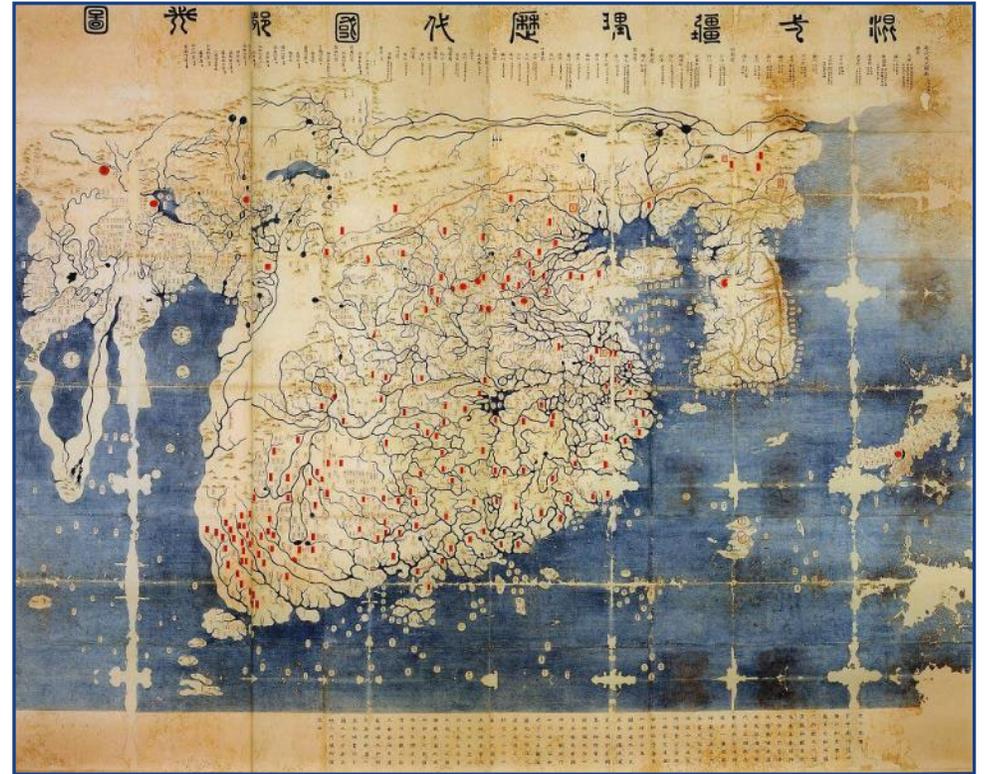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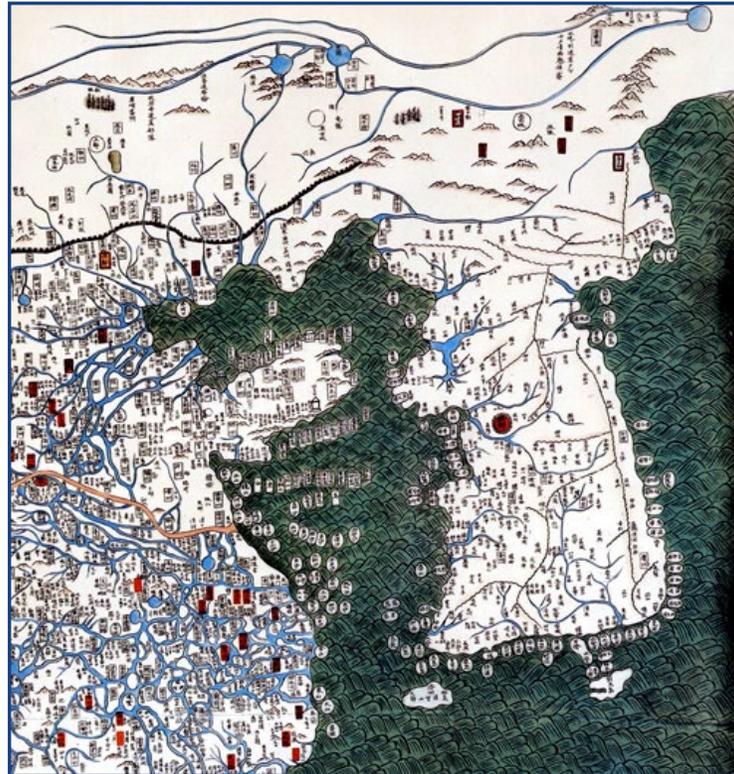
- 소위 ‘comprehensibility’의 문제였을까?
  - speech가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지에 대한 청자의 주관적 판단.  
(메시지가 정말 이해할 만한 것이었는가?)
- 한국인 사이에서 통용되는 comprehensibility는 어느 정도일까?
  - 국회의원: 으느 해사가 내 저거인지 명확하게 인지 해썬니까? / 하니: 죄송합니다. ...  
(평소에 하니 씨는 어느 회사 소속이라고 인지했습니까? 하이브 소속으로? 어도어 소속으로?)  
(본인은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닌가요?)
- 비원어민 화자에게 ‘쉽게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단어를 써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쉽게 풀어주는 언어적/비언어적 행위와 태도도 그 감도나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  
(teacher talk, foreigner talk의 문제, 뒤에서 추가 설명)
- comprehensibility를 높이기 위한 모국어 화자의 훈련과 교육은 국어교육에서 필요한 것인가?

# 1 강사의 경험 나눔

여러분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 접경(接境)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 언어는 다만 필요하면 **습득(習得)**할 뿐
- 한반도와 그 주변 권역(圈域)의 외국어 역시 오랜 시간 교류하며 진화하는 과정을 거침

언어 전승, 언어 교류,  
언어 진화, 언어 상상력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태종 2년(1402) >



Part 2,

# 단일 언어 아비투스과 언어 속지주의

## 2 단일 언어 아비투스과 이주자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성향이나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급 구성원들의 문화적 상징이나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개념.

아비투스는 개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와 개인이 속한 사회구조에 의해 산출되고 내면화됨.

54.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50점)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이 된다. 아동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많은 청소년들은 혼란과 방황을 겪으며 성장한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기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 청소년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주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54.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50점)

요즘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릴 때부터 악기나 외국어 등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기 교육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기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쓰라.

- 조기 교육의 장점은 무엇인가?
- 조기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조기 교육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쓰라.

이 시험으로 진학, 취업, 거주(등록), 귀화가 달려 있다면?

## 2 단일 언어 아비투스과 이주자

이야기를 읽고 거북은 1시간 동안 몇 km를 간 셈인지 구하시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9.5km 떨어져 있는 언덕 위의 나무에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것으로 하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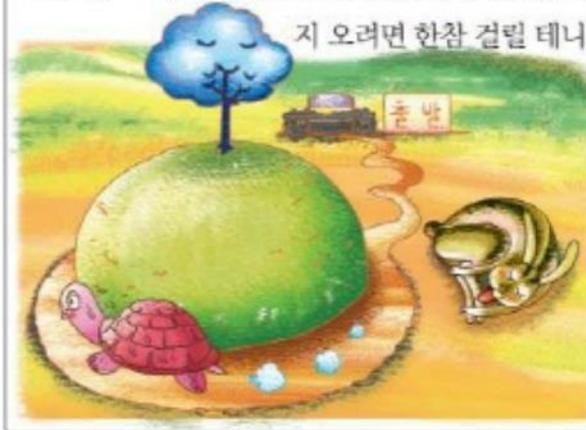
“준비! 시~~~~작!”

토끼는 재빠른 속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중간 지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거북은 느릿느릿…….

뒤를 돌아본 토끼가 말했습니다.

“으이구……. 저렇게 느린데 감히 나와 경쟁을 하려고 하다니……. 쫓쫓! 저 거북이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릴 테니 낮잠이나 자볼까?”



토끼가 낮잠을 자는 동안 거북은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 1.3시간만에 언덕 위의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거북이 승리! 만세!”

이 소리를 들은 토끼가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거북은 벌써 목적지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 )

문제를 못 풀면 수학을 못 한다고 할 수 있을까?

## 2 언어 속지주의

### 민족과 언어와 영토는 하나의 삼위일체(三位一體)

18~19세기, “헤르더의 삼위일체(Herderian triad)”의 아이디어

언어의 소유주: 그 영토에 사는 그 민족, 원어민 사용자

언어의 부적합한 사용자: 그 영토에 살지 않는 그 민족이 아닌 사람, 즉 비원어민 학습자

침입자: 이주민, 그 언어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언어 오염자?

**표준어 지향, 민족어로서의 단일어 강조,  
일본의 “國語” 관념에 영향, 그리고...**

### 3 1977년, 잡지의 한 코너

#### 볼 만한 꿀불건



서울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의  
왜식집 이름

영화 “영”자가 한국 이름인 이 “왜식집”은 그 영문 표기가 증명하듯이 손님들한테 그것을 일본 소리 “사카-에”라고 부르도록 부추기고 있다.

#### 볼 만한 꿀불건



#### 가슴팍이 썩었다

많은 청소년 남녀가 입을 셔츠엔 이런 로마자 낙인이 찍혔다. 아니, 이런 로마자 낙인이 찍힌 것을 많은 청소년이 사 입는다. 그런데 이런 낙인은 거의 틀림없이 서양 상품의 상호이거나, 서양 것이면 사죽을 못 쓰는 일본 사람들의 서양식 상호이다. 맑은 피가 흘러야 할 가슴팍에 달고 선전하는 것이 “아디다스”라니! 세상에 돈을 주고도 그토록 할일이 없어서 서양 상표의 가두 선전원 노릇을 택했을까?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어 팔아먹은 장사치들아, 돈이 그토록 좋더냐?

<뿌리깊은나무> 권말 코너  
“볼 만한 꿀불건” (1977년 7월호/11월호)

전가경·임유나(2015: 72) 재인용  
‘볼 만한 꿀불건’을 통해 본 1970년대 한국의 언어 경관,  
글짜씨 7(2),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pp.53~97.

### 3 '한국어 교육'에도 어른거리는 언어 속지주의



영어보다 훨씬 뛰어나고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우수한 언어,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서 한글이 세계 공통어가 되는 그 날을 위해  
저는 이 한 몸 다 바쳐 한국어를 가리키려\* 합니다.

### 3 21세기 이전, 다중언어에 대한 관점

이중언어에 대한 ‘불완전 관점, 장애적 관점, 교정적 관점, 미완성 관점’ 등이 팽배

- 한 언어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써야 하는 관점에서 이중언어자의 불완전한 표현은 ‘문제점’으로 인식
- 비유컨대 오른손잡이에 대한 위생학적 관점이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과 유사
- 두세 언어가 섞인 것은 깔끔하지 않고 뒤죽박죽(messy)이라는 위생학적 관점이 투영
- 외국 이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음(1990년대까지도 비교적 통용되는 논의)

한국의 경우, 다중언어의 세계를 ‘잊은’ 상태에서 강력한 표준어 아비투스(a)가 횡행

- 언어 속지주의와 ‘국어’ 이데올로기: 국어 사랑은 애국심에 닿는 것(국어 사랑 나라 사랑)
- 지역 방언의 다중언어적 접촉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곤란
- 영어 교육에서도 ‘영어’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기울어져 있었음  
(완전하고 완벽한 영어를 배워야 하며 엉터리 영어는 용납할 수 없음)

### 3 '국어교육'을 보는 모순적인 시각: "한국어의 교육"이란?

뜻게 퍼졌다. 너군너너 그 와효상의 시업은 활박이도 고상된 것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 축을 지속적으로 넘나드는 한국어 언어 주체의 활발한 운동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입체적으로 종합하는 언어 사용 주체에 대한 교육의 틀을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다루는 것은, 마치 실재하는 도시의 입체적 풍광을 한 장의 종이에 평면적으로 스케치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단일한 대상에 대한 단일 언어 교육을 지속해 왔던 관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한국어교육의 수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으로 구획하여 순발력 있게 대응해 온 나름의 효용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현재 한국어의 사용과 교육과 관련된 언어 경관은 더 이상 이제까지의 이분법적 구획틀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향은 앞선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이분법적 구분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재의 한국어의 교육 현상을 감당할 새로운 틀 짜기를 시도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의 교육에서 시간 축을 고려할 때, 초중등 학령기 교육의 편중을 극복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한국어의 교육에서 공간 축을 고려할 때, 지리적 위치나 혈통 등의 물리적 속성을 적용한 편의적 접근을 극복하고

## 한국어의 교육: 越境과 統合 (박재현·김호정·남가영·김은성)

<국어국문학> 177호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No.177, pp. 41~71

2016. 12. 31.

### 3 '국어교육'을 보는 모순적인 시각: "한국어의 교육"이란?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의 명칭을 '한국어기본법'으로 하는 것에 대한 여론 수렴과 공청(公聽)의 절차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종국적으로 한민족의 언어인 'KOREAN (Language)'을 가리키는 것은 '국어'라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또 이 법의 시행령이 나오면서 '한국어 교원'이 해외 한국어 보급 기관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의가 되기도 했다.

한편 국어기본법 제정 이후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어교육과정'이 2012년 7월에 고시되고, 이에 따른 교과서인 『표준한국어』가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한국어교육학'은 통상적으로 외국어로서, 혹은 제2언어로서 교수·학습되는 한국어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다루는 것으로 거의 굳어지게 되었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의 의심 없이 구분하여 지칭하는 현재의 상황이 바람직하다고는 판단할 수는 없다. 또 이 용어 사용이 모든 논의의 종결로 굳어졌다고도 말하기도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 연구의 대상이 '모국어 화자 대 외국어 화자'로 확연히 나눌 수 없는 지점은 애초부터 나타났었고, 어느 소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 변화, 통일 이후의 한국어, 국외 한국어 학습자의 구성층과 저변 확대 등을 보아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라 여겨지며, 두 학문의 정체성, 내용 영역, 인접 분야, 학술사와 미래 연구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며 거듭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sup>5)</sup>

4) 국가의 정책명이나 법령은 학술 개념 용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 역시 2005년 전후만 해도 다문화는 '茶文化'가 더 일반적이었던 용어였으나 2004년 민간단체인 '건강가정시민연대'와 관련 학계의 자연스러운 사용으로부터 확산이 되다가 2006년 교육부의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이라는 문건이 나오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완전히 굳어지게 된다. '한국어교육'이라는 용어도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5) 연구자는 교육대학교의 학생들과 이 문제를 두고 꾸준한 토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국어'와 '한국어'를 개념, 명칭, 교육과정, 교과서 전면에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한국어'를 상위 개념으로 놓고 학습자의 층이 다양해진다는 취지에서, 또 부진한 학습자라는 측면에서 국어와 한국어 교과를 서로 트고, 이를 토대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국어교육의 판을 재구성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하겠다.

한편 (초등) 국어 교과와 한국어 교과의 위상과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과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강남욱(2017)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 소통과 통합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책무 (강남욱)

<교육논총> 제38권 1호  
The Journal of Education, 38(1),  
pp. 241~266

2018. 3. 31.



Part 3,

# ‘한국의 언어’는 ‘한국어’인가?

(한국어의 힘과 한국 속 언어의 힘)

### 3 언어문화 다양성의 관점으로 한국 사회 바라보기

#### 한국의 언어를 통해 한국문화와 한국 사회를 보자면

- 한국어는 이제 ‘한국인만의’ 언어가 아니며,  
한국어 사용자의 ‘다양성’에 대해 연습과 익숙함이 필요
  - 한국어를 잘 하는 외국인을 ‘신기함’의 시선이나 ‘흥밋거리’로 바라보지 말아야
  - 한국어를 잘 하고 못 하는 것을 ‘우월’ 또는 ‘장애’로 환원하는 편견을 버려야
  -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기특하고 장하고 대단한 일’로 지레 생각하지 말아야
  -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한국어 자긍심’과 굳이 연결시키지 않아야

**수용 대역이 넓은 청자(聽者)가 되고, 편견과 과장이 없는 화자(話者)가 되어야**

# '다른 말' 사용자에게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발화

## Foreigner Talk의 일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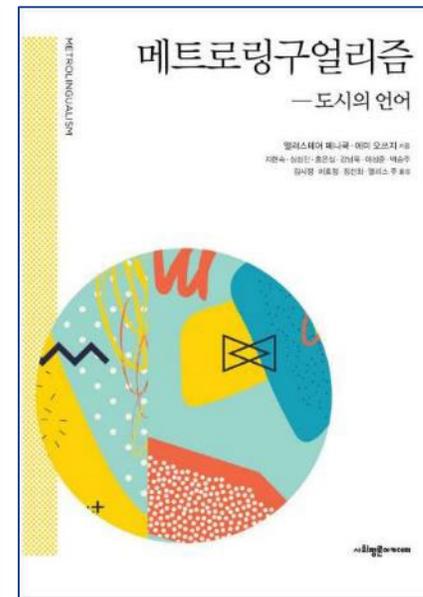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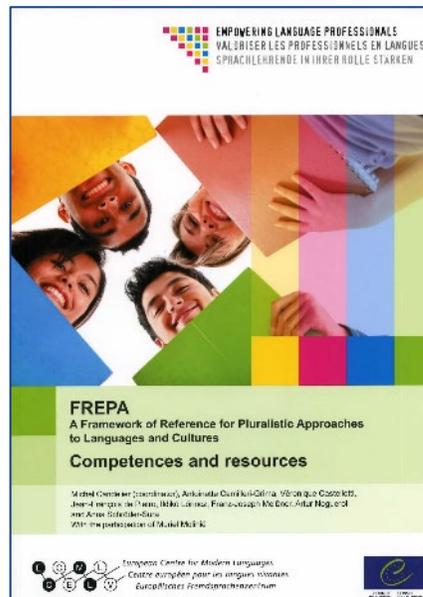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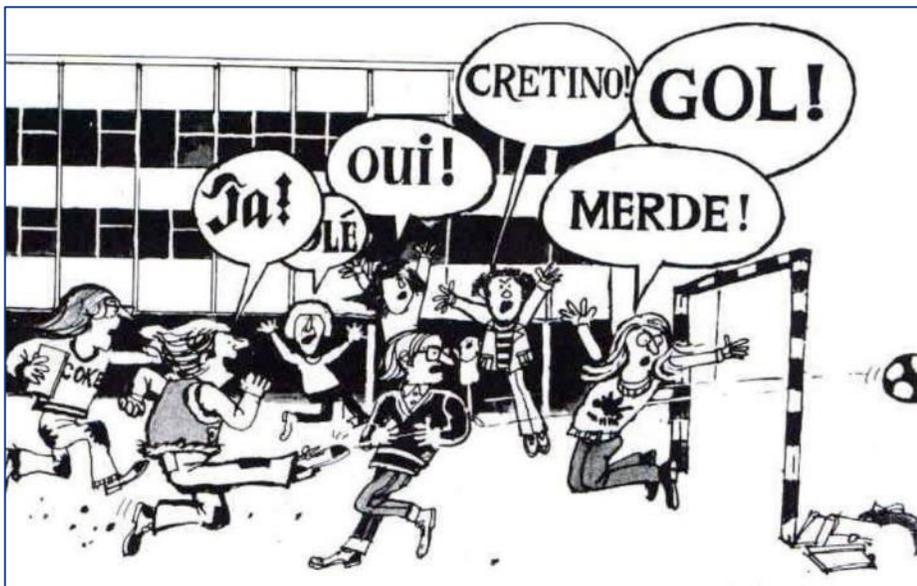
- ① 일반 발화보다 좀더 느리게 좀더 큰 소리로 말하며, 때때로 정확한 발음을 의식적으로 과장하여 말한다.
- ② 더 단순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관사나 기능어, 굴절과 같은 (문법적) 표현들은 생략되기도 한다. 또한 동사의 형식 또한 더 쉬운 쪽으로 교체되기도 한다.
- ③ 화제(주제)를 문장 앞쪽으로 옮기거나 반복하곤 한다.
- ④ 발화 안에 비문법적인 수정/조정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 지시나 질문에 비해 일반 진술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 ⑤ 발화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갖게끔 하는 요소나 장치들을 배치하게 되며, 암시적인 형태로 가르치려는 언어 양상을 띠게 된다.
- ⑥ 일반적인 대화에 비해 대체로 발화가 '현재와 지금'에 더 초점을 맞추려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 한국인들의 '외국인 대상 발화'

- ① 문법이나 어휘의 변화는 주지 않고 같은 문장을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하여 얘기하거나,
- ② 문장 중의 핵심 어휘나 문법 표현을 사전의 기술처럼 더 어려운 어휘로 설명하려 하거나,
- ③ 영어 또는 영어 단어로 얘기하거나(동일 어휘가 아닌 유의어나 콩글리시로 변환),
- ④ 유아 발화(Baby talk)로 변환하거나,
- ⑤ 비속어 또는 위협적인 표현을 삽입하여 동일 진술을 반복하는 등

# 3 멀티(multi-)에서 플루리(pluri-)로

언어 경관  
(language landscape)



Matériel : Les sites de McDonalds : <http://www.mcdonalds.com>; puis cliquez sur la liste des p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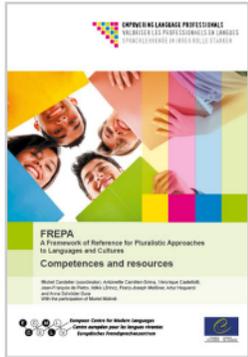
(© McDonalds)

### Exercices

- 1- Sur le site, comparez les types de traduction du slogan de la marque dans toutes les langues.
- 2- Est-il traduit dans toutes les langues ?
- 3- Que pouvez-vous dire de ces traductions ?
- 4- Qu'en concluez-vous ?



# 멀티(multi-)에서 플루리(pluri-)로



## WHAT IS ITS CONTENT?

The term pluralistic approaches to languages and cultures refers to didactic approaches which involve the use of several (or at least more than one) variety of languages or cultures simultaneously during the teaching process. By abandoning the "compartmentalised" view of an individual's linguistic and cultural competence(s), this publication is a valuable step towards implementing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in particular its rationale on plurilingual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Examples of descriptors:

- "Can use knowledge and skills already mastered in one language in activities of comprehension / production in another language" (Skills);
- "Having confidence in one's own abilities in relation to languages (their study / their use)" (Attitudes).



### 3 한국식 '다문화(교육)'에 덧입혀진 편견과 고정관념

#### ■ 철학상 문제

-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동화주의 일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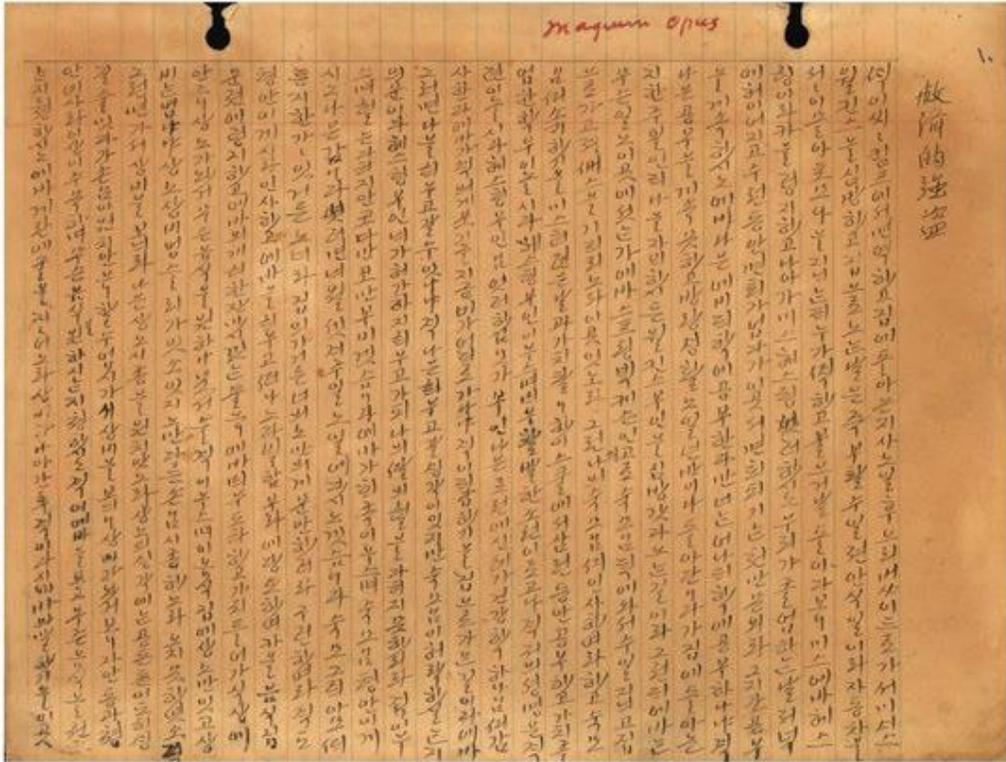
#### ■ 용어상 문제

- 다문화 : '외국인', '동남아' 연상. '타(他)문화' - 과도한 단일의식 때문
- 다문화 가정 :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의 고정관념. 또는 '이민자 자녀' 편견
- 다문화 교육 : 한국어교육 + 학업지원. '국제이해교육'과 혼동. '유일한' 교육처럼 여김

#### ■ 실행상 문제

- 일회적, 전시적 > 지속적
-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시혜적 교육 >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 다문화 담당 교사에게 할당된 교육 > 모든 교사의 관심 영역(관리자, 교사, 행정 담당자)

### 3 Multi-, Pluri-, 이를 넘나드는 Trans-



재미 한인 작가 전낙청의 소설 '구제적 강도' 첫 장. (1930년대 중반)  
남가주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동아시아 도서관 소장.  
2018년 황재문 교수의 발표로 공개

순검이 그 대답하는 사람의 성명거두을 기록하고 충돌되든 광경을 말하라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모든 카가 자우에 스답하여 통형 별 울기을 고딕하는디, 수투리카가 썰 소리를 조차 서향으로 가는데, 남으로 올라오는 카 소리가 속하기로 돌아본즉 무려이 칠십 마일 팔십 마일 빗뿔이라. 스답 업시 다라가 스투릿카을 밧은즉 수투리카는 던복되고 그 카은 던복된 카 우에 걸니었다.”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 본 것도 그이 본 것과 갓트나, 다른 것은 그 두라입버가 카을 킨투를 못하는 것을 보아스니, 아마 두링커인 듯하다.”

순검이 가서 카을 검사하니 킨터키 문쇠인 랫 바들이 잇는데, 삼분지이는 업서 진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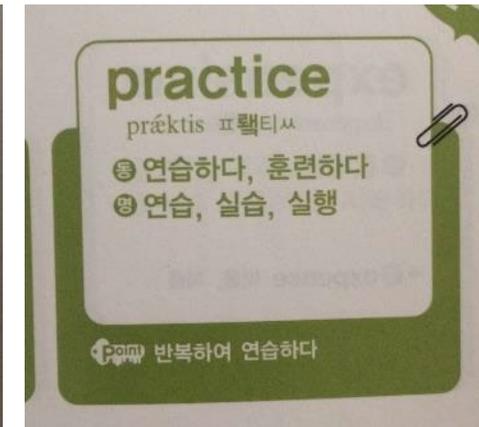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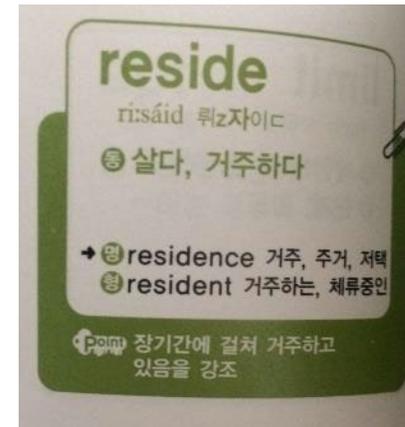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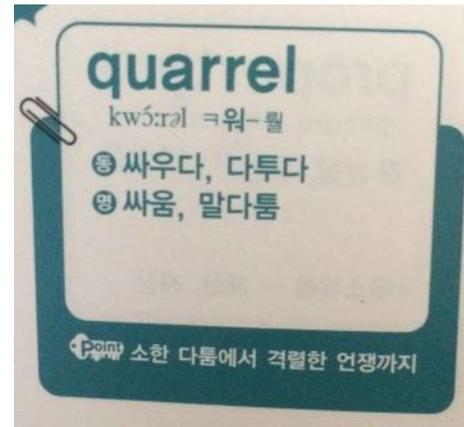
- 「구제적 강도(救濟的強盜)」, p.57.

# Multi-, Pluri-, 이를 넘나드는 Trans-

기미군 キミクン 君 ① 君	인군 인 君 君	아메덴 アメテン 天 ① 天	하날 하 천 天
Ruler	Sky		
으를러	스카이		
쓰카히신 ツカヒシン 臣 ① 臣	신하 신 臣 臣	쓰지 ツチ 地 ① 地	디땅 디 지 地
Minister	Earth		
미너스터	이어트		
웃도후 ウツトフ 夫 ① 夫	지아비 지 부 夫	지치후 チチフ 父 ① 父	아비 아 부 父
Husband	Father		
허쓰반드	오프아저		
쓰마후 ツマフ 婦 ① 婦	지어미 지 부 母	하하보 ハハボ 母 ① 母	어미 어 모 母
Wife	Mother		
와이엇	모어		

지석영본 <아학편(兒學編)>(1908)

강남욱(2019), 지석영본 <아학편(兒學編)>(1908)으로 살펴본 트랜스링구얼리즘(translingualism)과 교육적 의미



KCI 등재

케이팝 아이돌 노랫말에 나타난 코드스위칭의 양상과 담화 기능

The Aspects and Discourse Functions of Code Switching on K-pop Idol Lyrics

다시 생각하는, 2000년 여름에 만난, 토와족 아저씨와의 만남.

### 3 Multi-, Pluri-, 이를 넘나드는 Trans-

## 다중문화, 다중언어사회에서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 한국에 산다고 해서 그 구성원 모두의 모국어가 한국어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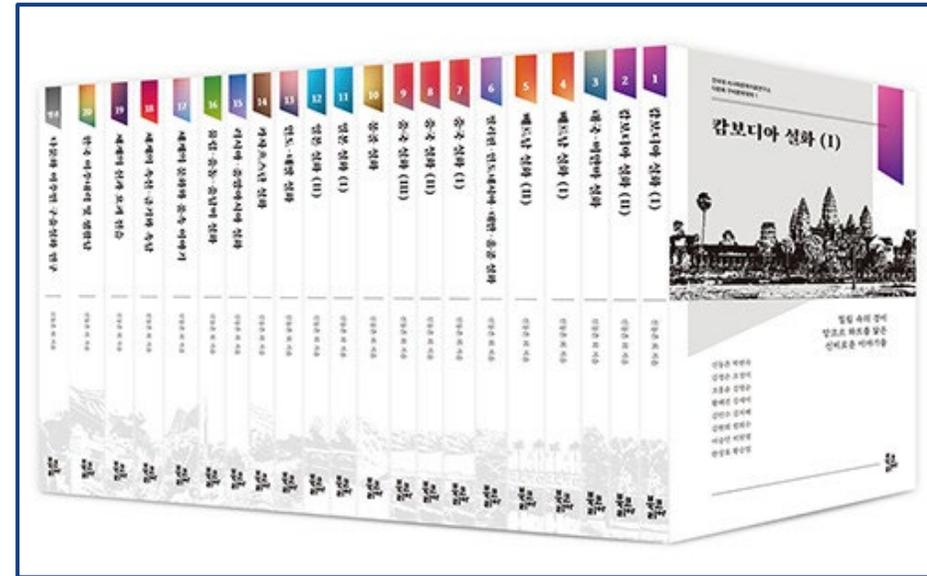
(재외동포의 사례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 언어는 자원이다. 언어의 역동성이 활기와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주자가 갖고 있는 모국어, 이들로부터 이어지는 계승어에 억압이 없을 때 오히려 한국의 언어와 한국 문화는 획일성을 버리고 역동성을 갖게 되어 더 풍부해지게 된다.

(독일과 호주에서 계승어에 대한 접근)

예컨대, 영화 <미나리>의 할머니는 한국인 손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국어로 들려 주었고, 그 손자는 장차 자라며 어떤 스토리텔링의 지능과 구조를 영어 주류 사회에서 풀어가 보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미국 문화를 어떻게 풍부하게 하고 있을까?



### 3 Multi-, Pluri-, 이를 넘나드는 Trans-

다문화, 다중언어사회에서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공간적인 다(multi-) 문화주의에서  
개별/개체적인 다중(pluri-) 문화주의로  
관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넘나드는 횡단(trans-) 문화주의의 담론이 풍성해지고 있다.**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에서 다중언어주의(plurilingualism)로 전환)

다중언어는 학습자 주체성(learner agency)에 대단히 크게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는 언어교육-국어교육에도 당연히 관련이 된다.

A low-angle shot looking up from the eaves of a traditional Korean palace building. The eaves are dark wood with colorful, ornate carvings in shades of green, red, and blue. The sky is a clear, bright blue. In the background, a large tree with vibrant autumn foliage in shades of orange, red, and green stands prominently. Other traditional buildings with tiled roofs are visible in the lower part of the frame.

Part 4,  
이주배경학생들을 만나며

### 3 이동과 이주, 그리고 관성과 고정관념 (현황과 사례)

#### 재시험 임용 후 '첫 발령 학교'가 안산의 모 학교였던 K 교사와의 면담

- 전혀 예상치 못한 '교실의 언어다양성'  
(95% 수준의 외국인 학생 비율, 20여개 나라, 주요 통용어 3~4개어)
- 학생 지도를 위한 K 교사의 놀랍고도 진지한 도전, 그리고 성장
- 동료 교사, 한국어 학급 강사 선생님과 이루어진  
다양한 협업, 시행착오, 문제 해결
- K 교사의 솔화: “닥치면 한다, 하면 당연히 잘 하고 싶다,  
싫다고 피할 일도 아니다, 의외로 재밌다,  
다만 내가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3 이동과 이주, 그리고 관성과 고정관념 (현황과 사례)

## 언어 '장애인'과 언어 '정상인'의 차별적 관점이 여전히 잔존하는 현실

- 전 학교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한국어가 안 되니까”의 시선  
어학 ‘집중 코스’가 끝나야 뭘 해도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 교사의 다중 언어 교실 운영의 경력, 노하우,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어려운 상황
- 일부 학교, 학교관리자, 교사의 정책과 태도  
안에 은연중에 존재하는 ‘언어 장애’적 시각
- 일반학급 환급 후 오히려 위축되는 악순환
- 언어 다양성을 자원화하지 못하고 부정적 요소로 인식

#### 아산 다문화 학생 급증 학교 운영 부담 가중

▲ 윤평도 | © 승인 2022.03.22 13:20

둔포초 303명중 64%, 관대초 64명중 절반이 다문화 학생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수업 진행 어려워...6월 교육센터 개설 후 나아질 것"



다문화 학생 비율이 45.89%인 아산 신당초등학교의 교사 건물 모습. 사진=윤평도 기자

[아산]아산시 일부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급증해 학교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둔포초에 따르면 재학중인 다문화 학생은 195명으로 전체 학생 303명 중 64.3%를 차지한다. 둔포초는 올해 아산교육지원청 관내 65개 초등학교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다. 둔포초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19년 30% 대였지만 지난해 60%를 넘었다. 올해는 코로나19 격리해제 완화로 중도 입국하는 외국인 가정의 다문화 학생 수가 더욱 늘어날 예상이라서 둔포초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학기말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둔포초와 같은 아산시 둔포면의 또 다른 초등학교인 관대초도 이달 기준 64명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31명으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50%에 육박했다.

### 3 학교 안에도 스며 있는 우리의 시각

- “언어 장애인”과 “언어 정상인”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음.

**“애는 한국어가 안 되니까.”**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으로 인해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어도 안 되는 애를 왜 학급에 돌려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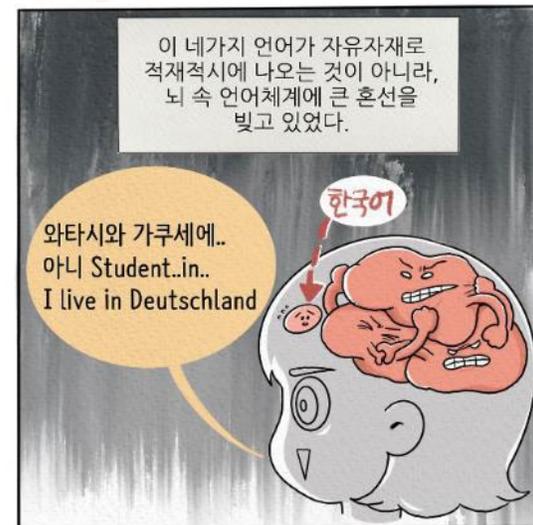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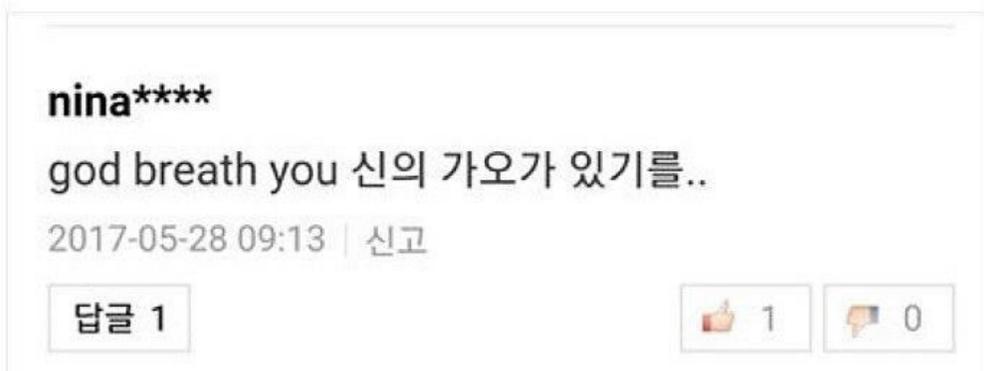
**“특별학급으로 보내서 한국어를 빨리 공부시켜야 한다.”**

**“환급까지 했는데 왜 한국어가 안 되죠?” “아무래도 환급하기에는 무리예요.”**

- 교과 진입의 문턱에서 학교 안 문맹자로 전환될 수 있음
- 교사의 다문화 역량의 보존과 강화가 전혀 격려/장려 받지 못하는 상황 + 업무 기피
- 1960~70년대 코리아타운에 있는 초등-중등학교의 미국인 교사들은 어떠했을까?

### 3 Semi-lingualism, 혹은 0개 국어

#### 전설의 0개국어



- 어느 쪽 언어로도 문식력이 형성되지 않고 언어 사용이 불완전한 반(半)링구얼리즘(semilingualism) 상태가 존재하기도 함.
- 자국의 모국어 교육 경험, 가정 문식력의 상황이 매우 큰 차이가 있음.
- 한국어 접촉 맥락,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차이가 크고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3 교과 진입, 양손잡이 문해

언어(한국어) 기반 과제 중심 학습	6학년 ( )반 ( )번 이름 ( )
1.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사회: 6-33쪽)	

## 1단계 중요한 단어 복습하기

■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생각나는 단어를 쓰세요.

순	한국어	모국어(Русс)
1	왕	
2	선거	
3	투표	
4	대통령	
5	정부	

## 2단계 새로운 단어 배우기

한국어	모국어(Русс)
несправедливые выборы 15 марта	
Апрельская революция (также Революция 19 апреля, Движение 19 апреля)	
военный переворот 16 мая	
Движение за демократию 18 мая	
Июньск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борьба (Июньско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Июньско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восстание)	
Декларация о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29 июня	

## 3단계 학습 내용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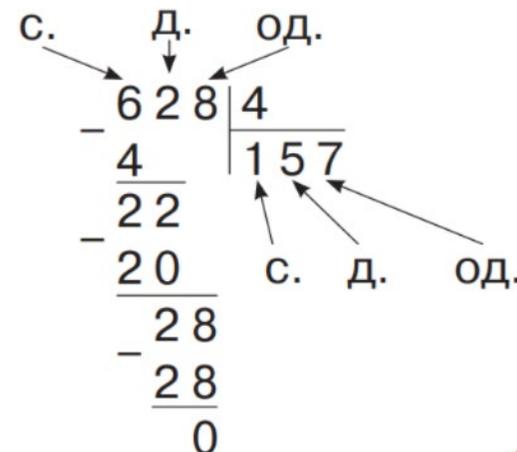
■ 사전적 의미와 모국어로 이해하기

한국어	의미(한국어, 러시아어)
3·15 부정 선거	1960년 자신이 계속 대통령이 되기 위해 헌법을 바꾸고, 유권자*에게 물건이나 돈을 주고 투표하도록 함. 15 марта 1960 года прошли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Ли Сын Ман, который был на тот момент президентом уже третий срок, внес поправки в Конституцию, чтобы выдвигаться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в четвертый раз, а людям, которые обладали избирательным правом, давали за их голос вещи или деньги *유권자 - человек, обладающий избирательным правом.
4·19 혁명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함. → 4월 19일 시민, 대학생, 초등학교, 대학 교수들까지 시위에 동참*함. →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3·15 부정 선거는 무효화 되었음. Начались массовые протесты против несправедливых выборов 15 марта 1960 года. → была задействована полиция и протесты были жестоко подавлены → 19 апреля к протестам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горожане, студенты, ученики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и даже профессора университетов. → Ли Сын Ман был снят с поста президента, а результаты выборов 15 марта признали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ми.

## 4단계 새로운 단어 반복하기

■ 단어와 뜻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민주주의	•	•	(прямое) голосование
혁명	•	•	демократия
선거	•	•	революция
정부	•	•	выборы
민주화 운동	•	•	правительство
민주화 선언	•	•	Движение за демократию
군사 정변	•	•	Декларация о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투표	•	•	военный переворо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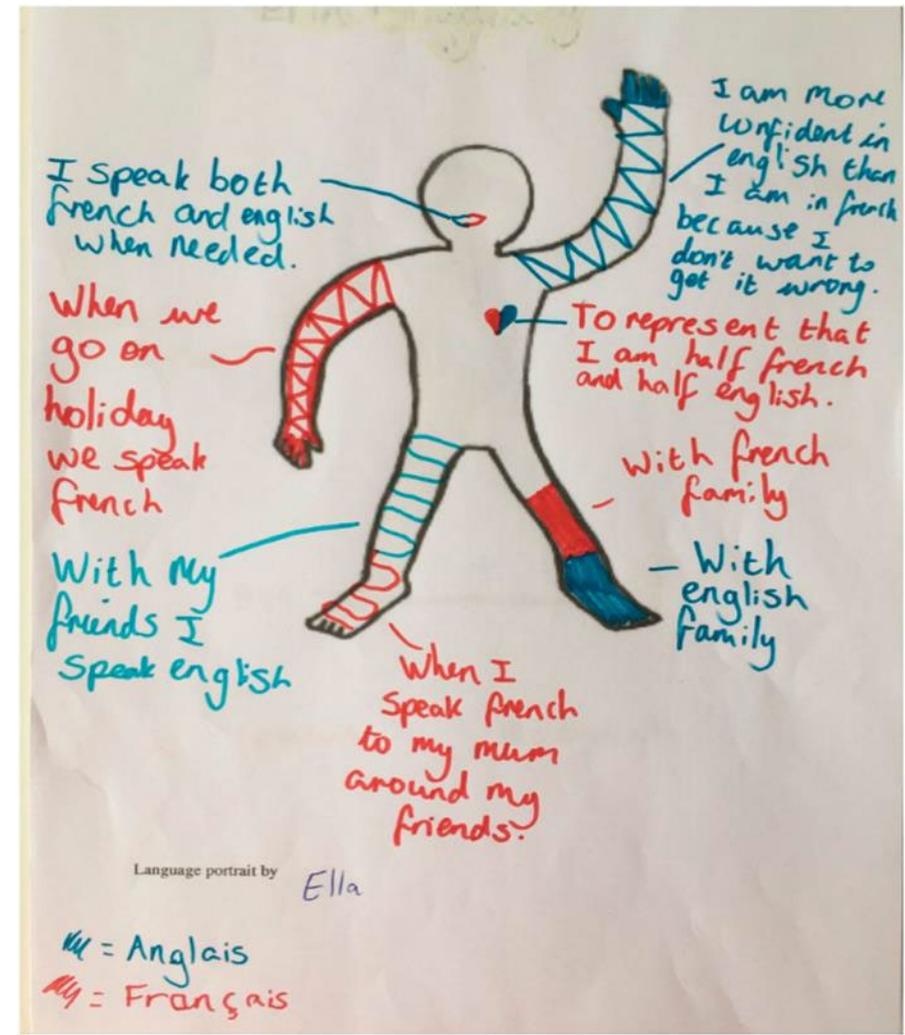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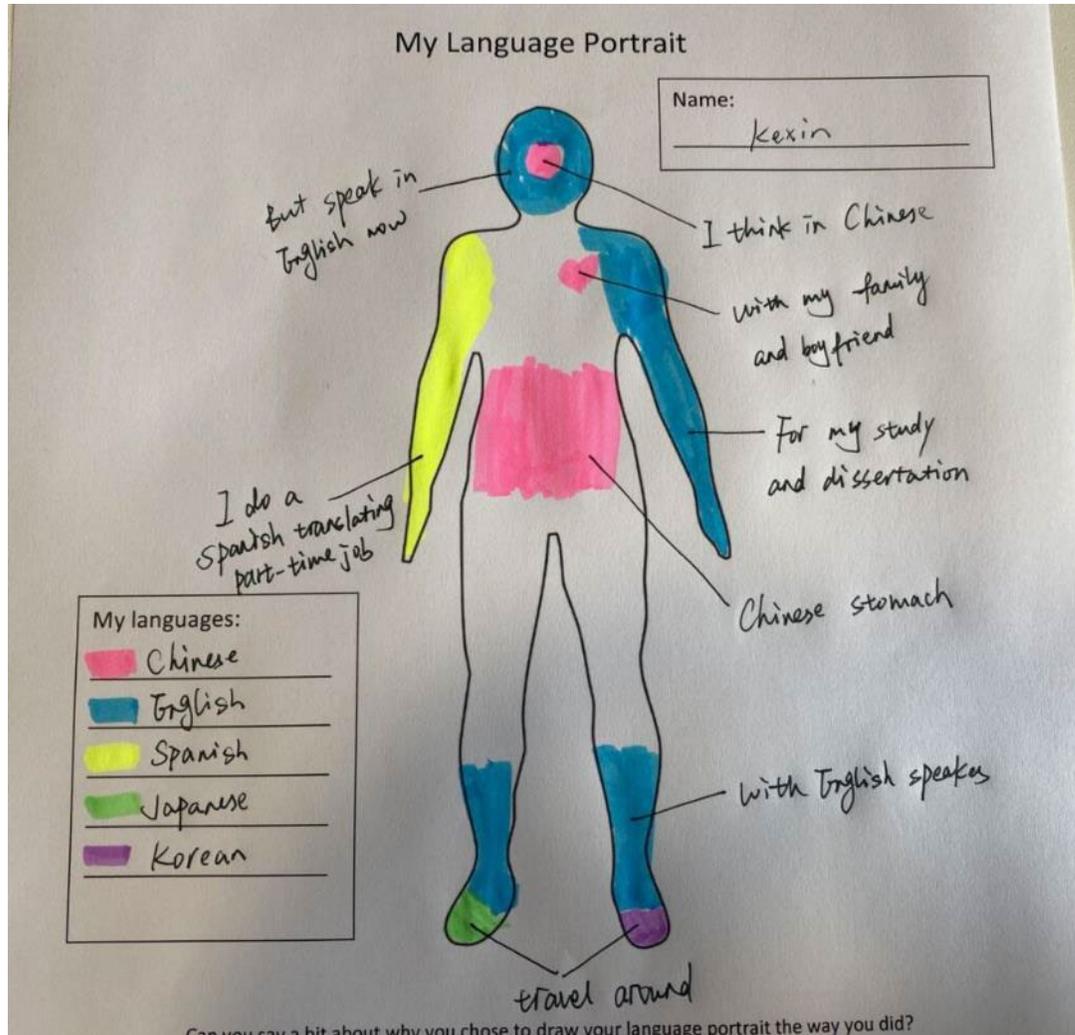


이중언어 강사의  
적합한/적절한 활용

$$\begin{array}{r}
 165 \\
 \hline
 6 \overline{)990} \\
 \underline{6} \phantom{0} \\
 39 \phantom{0} \\
 \underline{36} \\
 30 \\
 \underline{30} \\
 0
 \end{array}$$

### 3 그들이 갖게 되는, '언어 자화상'

내 몸에는 어떤 언어가 있는가? - Language portrait



Part 5,

# 갈등/감산의 언어, 자원/가산의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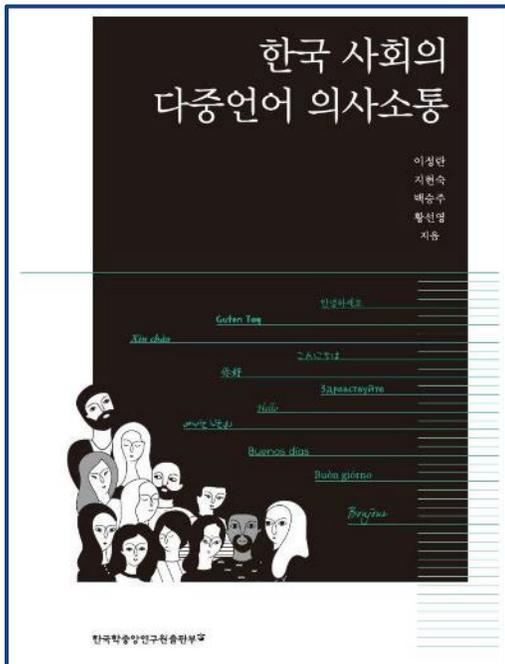
(이야기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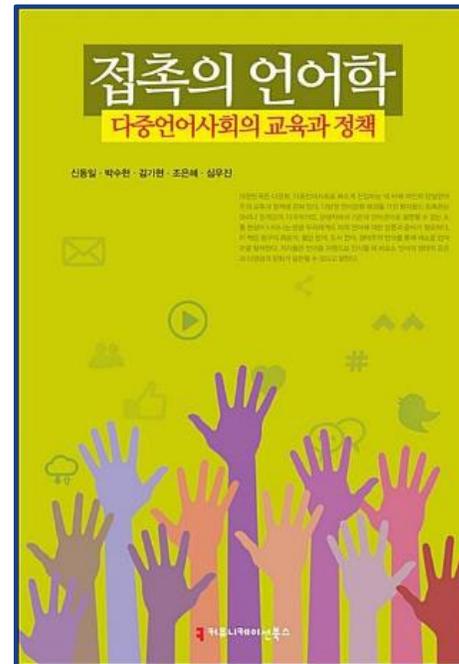
## 5 도구로서의 언어 학습을 지나 다시 '접촉의 언어'로

다시 “의사소통의 즐거움”으로 돌아가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른 정체성의 타자를 환대(hospitalité; *Derrida*)하기 위해

벽을 해체해서 새로운 의미와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주체적, 능동적 개인이 초연결 시대 속에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다중언어 의사소통  
이정란, 지현숙, 백승주, 황선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2.



접촉의 언어학  
신동일, 박수현, 김가현, 조은혜, 심우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5 이중(다중) 문해자가 훗날 한국이라는 다중언어 공간에서

- 우리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한인 이민사를 고찰하며 역으로 생각한다면?



Lee Isaac Chung, 정이삭, <MINARI>, 2020.



Emi Kawawada, 川和田恵真, <MY SMALL LAND>, 2022.

- 한국판 <미나리>를 제작할, 미래의 정이삭 감독과 같은 **이주 배경의 00계 한국인이** 한국에서 제작한 비한국어(외국어) 작품으로 한국 영화상을 수여할 수 있는 사회
-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 포용성과 긍정적 다양성, 이를 교육 역량화하여 다중적 문해력을 자원으로 가진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학교의 능동성과 균형 감각이 필요.

## 5 갈등/감산에서 자원/가산의 언어로



즐겁게 소통하고, 신나게 팀워크를 만들고,  
One team이 되어서 나의 성장과 팀의 성공을 만들면 된다!

A traditional Korean wooden lattice window (jeogori) with a blue text box in the center. The window is made of dark wood and features a grid pattern of vertical and horizontal slats. The background is a light, warm-toned wall with some faint, stylized patterns. The text '고맙습니다' is written in white, bold, sans-serif font on the blue box.

고맙습니다